국별 리포트

아랍에미리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8.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4

Ⅴ. 종합의견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84천 km^2	G D P	3,713.02억 달러 (2016)
인 구	9.86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37,657.35달러 (2016)
정 치 체 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UAE Dirham (Dh)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3.67 (2016)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2016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와 6.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7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또한, 두바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석유부문의 GDP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며, 정부는 건설, 유통, 관광, 물류,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아랍의 봄”)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정정불안을 겪고 있으나, UAE는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아부다비의 군주)의 통치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제 성 장 률	4.6	3.1	3.8	2.7	1.5
재 정 수 지 / G D P	10.4	5.0	-2.1	-3.9	-2.6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1.1	2.4	4.1	1.8	2.8

자료: IMF, EIU.

□ 저유가 지속 및 OPEC 감산 합의 등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

○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는 경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석유 부문의 GDP 비중이 2006년 37.5%에서 2016년 31.1%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여 국제유가 변동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미국 셰일업체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8월 30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약 46.44불(배럴당) 수준으로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4일 OPEC이 작년 11월의 감산 합의(일 3,250만 배럴 유지)를 9개월 연장(감산 기한 2017년 6월 → 2018년 3월)함에 따른 원유 생산량 제한으로 금년 석유 부문은 3.7%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비석유부문은 재정지출 감소, 디르함 통화 고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 증가, 엑스포 2020관련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여 금년 성장률이 약 3.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할 전망임.

- 이는 2016년 10월 4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인 2.5%보다 1.0%p 하향 조정된 것임. IMF는 2016년 11월 30일 OPEC 합의에 따른 원유 감산이 이번 성장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음.

□ 저유가 환경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으로 재정수지 개선

○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UAE 재정수입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적자 여부와 폭이 좌우됨.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5년 -2.1%, 2016년 -3.9%로 연속 적자를 기록함.

– 재정적 압박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석유제품 인상, 전기 및 수도요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시행한 결과 지난 2년간 정부 지출이 14% 감소하여, 2017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6% 적자로 개선될 전망임.

○ UAE는 재정수지 개선책의 일환으로 최근 '부가가치세 공동 도입을 위한 GCC 협약'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동 도입을 위한 GCC 협약'을 비준하였음.

- GCC 사무국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무국에 상기 2개 협약 비준서를 제출한 국가이며, 두 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사무국에 제출됨에 따라 동 협약들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담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금년 4/4분기부터 담배 100%, 에너지 음료 100%, 탄산음료 50%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세율 5%)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임.

- UAE를 포함한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 회원국들은 앞서 2015년 12월 7일 기존의 무세(無稅) 정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6개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교통비 하락, 유동성 증가 제한 등으로 인해 하향 안정될 전망

○ 201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로, 2015년 4.1% 대비 2.3%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주요 하락 원인은 평균 교통비 인하인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UAE 정부의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 원유가격에 연동하였고, 저유가로 인해 UAE 국내 석유제품 가격 등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평균 교통비가 4.1% 감소함

○ 달러 페그제(1달러 = 3.67 디르함)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시 UAE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유동성 공급 증가가 제한됨.

- 2017년 6월 15일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0.25%(0.75~1% → 1~1.25%) 인상하자, UAE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1.25% → 1.5%) 인상

○ 아울러 부동산 경기 과열의 진정으로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료 상승률이 낮아지고, 주요 교역국 대비 통화강세는 지속됨.

-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2015년 5.5% 하락에 이어 2016년에도 4.6% 하락하였으며, 부동산임대수익률은 2015년 7.39%에서 2016년 7.36%로 하락하였음.

- 2016년 미국을 제외한 9대 수입상대국 대비 통화가치가 평균 1.21% 상승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연방 내 토후국들의 경제력 간에 큰 격차가 존재

○ 아부다비는 UAE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1인당 GDP가 약 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넉넉한 경제여건을 향유하고 있고, 두바이는 유통물류·교통·관광 및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갖춰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

○ 이에 반해 아즈만, 움 알콰인, 라스 알 카이마, 후자이라 등 북부 토후국들은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이 빈약하여 저개발 상태로서, 석유가스 자원 유무, 인구 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성공 여부에 따라 토후국 간에 경제발전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여전히 편중된 경제구조

○ 연방 및 각 토후국 차원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이 계속되어,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관광, 금융, 물류 등의 비석유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음.

○ 경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석유 부문의 GDP 비중이 2006년 37.5%에서 2016년 31.1%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연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석유 산업이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 UAE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경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15세 이상의 취업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자국민이 3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은 취업을 전제로 한 거주비자 발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77%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매장량 세계 8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7위의 자원 부국

○ UAE는 2016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와 6.1조 ㎥의 천연가스(세계 7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특히 원유 매장량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약 8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 GDP의 60%를 차지하는 아부다비가 UAE 전체 원유 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보유함.

○ 일일 원유 생산량은 407만 배럴(2016년)로 세계 7위이며, 신규 유전의 개발 등으로 2010년부터 산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619억 ㎥(2016년)로 세계 15위임.

○ 이외에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非에너지 광물자원의 개발잠재력도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와 경제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2008년 11월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된 고부가가치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전략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동 전략은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방위산업, 제약-생명공학, 관광, 의료 등의 Global Focus Sectors, 수송-무역-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의 Regional Focus Sectors의 전략적 확충을 추구하고 있음.

- 동 전략에 의해 아부다비 경제가 2030년까지 달성코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경제성장률 6%(비석유 부문은 7%), 실질 GDP 중 비석유 부문 비중 64%, 실질 GDP 대비 비석유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임.

- 아울러 아부다비 정부는 최근 5개년 개발계획(2016~20년)을 새로이 수립하여 인프라 개발, 비석유 부문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Key Player 역할 지속

○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한 중동·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의 물류 허브임.

- 특히 석유, 은행, 상업용 부동산 임대 외에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 적용(5%)으로 낮은 수준임.

- 또한 6개월 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두바이 EXPO 2020 개최 준비 본격 착수

○ EXPO 부지에는 국가관, 광장, 호텔, 조경시설 등이 들어서며, 총 프로젝트 사업비는 22억 달러 규모로 전망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도심과 EXPO 부지를 연결하는 메트로 확장공사 및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가 있음.

○ 두바이 정부는 EXPO 부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외에도 EXPO의 성공적인 개최 및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임.

- 현재 발표된 대형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Burj Khalifa의 높이를 넘어서는 Dubai Creek Harbour의 The Tower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디딤돌

○ UAE는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여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38개 평가대상국 중 종합 16위에 올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26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달성하였음.

- 최근 저유가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순위가 하락한데 비해, UAE는 경제 다변화 및 혁신 노력에 따라 오히려 순위가 1단계 상승하였음.

- 아랍권에서는 카타르 18위, 사우디아라비아 29위, 쿠웨이트 38위, 바레인 48위, 요르단 63위, 오만 66위로 평가되어 UAE에 비해 사업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3. 대외거래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감소 추세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EIU 자료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의 저유가 추세로 인해 2016년 UAE의 원유·가스 수출액은 320억 달러(수출비중 10.7%)로, 2013년 1,198억 달러(수출비중 32.3%)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3년 18.3%에서 2016년 3.1%로 급격히 위축되었음.

○ 다만 작년 10월(OPEC 회원국들) 및 12월 (OPEC 비회원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다소 상승 추세를 보여, 2017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4.2%로 다소 회복할 전망임.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 투자 유치 호조 등으로 증가 추세

○ 2016년 외환보유액은 2012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추세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3년 말 669.5억 달러 대비 32.0% 증가한 84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7에 의하면, UAE는 2016년 한 해 동안 GCC 6개국 중 가장 많은 89.9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음.

※ 연간 FDI 유입액(억 달러) : 94.9('13) → 108.2('14) → 88.0('15) → 89.9('16)

□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 대외지급능력의 급속한 악화 가능성은 낮은 편

○ 각종 인프라 개발, 아부다비와 두바이 외의 토후국들의 민심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6년 말에는 60.7%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두바이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2011년 146.2%까지 급등했던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금융위기 사태 해소로 2015년 말 104.9%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말에는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114.1% 수준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D.S.R도 2013년 말 6.4%에서 2016년 말 10.6%로 상승하였으나, 2017년 말에는 10.4%까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국부펀드를 통한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중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에 따르면, 1976년 설립된 아부다비 투자청(ADIA)의 운용자산은 2017년 6월말 기준 약 8,280억 달러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9,221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음.

○ 이외에 두바이투자회사(ICD) 2,095억 달러, Mubadala 개발회사 1,250억 달러,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 1,100억 달러,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663억 달러, 에미리트투자청(EIA) 340억 달러, 라스 알 하이마흐 투자청(RAKIA) 12억 달러 등이 있음.

- 현재 UAE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는 GDP의 370%로, 저유가의 충격을 흡수할 재정적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상수지	71,192	54,471	17,253	11,535	17,270
경상수지/GDP	18.3	13.6	4.7	3.1	4.2
상품수지	140,397	108,440	76,559	68,309	75,618
수출	371,173	343,017	300,436	298,584	315,565
수입	230,776	234,577	223,877	230,275	239,947
외환보유액	66,951	77,242	92,572	84,383	88,370
총외채잔액	171,114	194,159	222,429	225,237	227,788
총외채잔액/GDP	44.0	48.3	60.1	60.7	55.9
D.S.R	6.4	7.4	9.4	10.6	10.4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1971년 연방 창립 이래, 각 토후국간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국 유지

○ 석유 수입의 토후국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토후국들에 대한 사회 인프라 및 복지 지원 등으로 전체 연방의 화합을 유지하고 있음.

- UAE의 정치체제는 7개 토후국이 연방 정부를 구성(1971년 출범)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이며, 토후국별로는 왕정을 취하고 있음.

○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군주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하에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현재 69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나, 그의 이복동생인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자가 이미 실질적인 통치자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어 Sheikh Khalifa의 유고시 왕위 및 대통령직 계승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왕족 일가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 국내외의 민주주의 요구가 있으나 미약한 수준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6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UAE는 167개국 가운데 147위로 하위권 그룹에 속하여 민주주의 단계가 낮음.

○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반정부, 반이슬람 표현 의견 게재 혐의로 고발되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방되는 등 강경 대응으로 그 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UAE 정부는 현재 무슬림형제단의 지부인 al-Islah 등 자국 내 이슬람 주의 정치세력 및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발호를 적극 억제하는 한편, 2014년 들어 테러대처법 개정 및 테러자금 세탁방지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래 중동 정세 격변에도 불구, 안정적 정세 유지

○ UAE는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여파를 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됨.

- 소득수준이 높고, 집권층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덜하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 (약 88%)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보기관, 군대, 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당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세력화가 어려움.

□ 토후국간 소득격차 확대는 잠재적 불안요소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토후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 증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연방정부는 북부 토후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과 식료품 보조금제 도입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기간 내에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임.

□ 예멘 내전 개입, 시리아 IS 거점 폭격 참여 등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공격 가능성 제기

○ UAE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하여 지상군을 파병하고(수니파 세력 지원),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이슬람국가)의 시리아 내 거점에 대한 폭격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UAE를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보복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UAE 정부는 6월 15일 예멘 내전에의 직접적 참여를 종료하되,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UAE 군대의 예멘 내 주둔은 당분간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음.

3. 국제관계

□ 카타르와의 단교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으나 제한적

○ 2017년 6월 카타르가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카타르와 단교하고 카타르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 제한, 카타르 관련 선박 입항 금지, 카타르 국민 출국 명령 등을 시행하였으나, 카타르와의 무역·관광·부동산 거래 비중 등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현재로서는 그 부정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2016년 6월 9일 UAE 중앙은행은 Local 은행, 외국은행 지점, 환전상, 기타 금융기관에게 59명의 개인(Individual) 및 12개 단체(entity)*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할 것과 카타르 6개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테러와 연계된 불법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할 것(enhanced due diligence)을 지시함.

  * 사우디, 바레인, 이집트, UAE 4개국 정부가 6.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테러 연루 개인 및 단체

  ** Qatar Islamic Bank, Qatar International Islamic Bank, Barwa Bank, Masraf Al Rayan, Qatar National Bank, Doha Bank

- UAE 전체 무역액(2016년 4,693억 달러) 중 카타르와의 무역액(16년 34억 달러) 비중은 0.7%임

□ 안보 및 투자유치 등 친서방 노선 유지 및 국익우선의 실리 외교 추진

○ UAE는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내전에 휘말린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가능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미 국무부는 2016년 7월 IS 격퇴전의 일환으로 UAE에 7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폭탄, 유도장치 탄약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 현재 UAE의 al-Dhafra 공군기지에는 3,500여명의 미군 병력과 IS 공습 작전 등에 사용되는 전투기, 정찰기 등이 파견되어 있음.

○ 아울러 서방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과도 원유 수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UAE 국립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교역량의 9.9%인 284억 달러를 점유하여 1위, 중국은 전체 교역량의 8.8%인 254억 달러를 점유하여 2위를 차지하였음.

□ GCC내 균형자적 역할 모색 및 경제 협력 강화 추구

○ 걸프 지역의 6개 수니파 왕정 국가들의 협력체인 GCC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및 역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유럽연합(EU)과 같은 성격의 협력체인 걸프연합(Gulf Union)의 결성에 대한 구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내해(內海) 영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간 분쟁,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걸프중앙은행의 소재지로 결정된 데 반발한 UAE의 GCC 통화동맹 탈퇴, 무슬림형제단을 후원하는 카타르에 대한 자국 대사 소환 등 갈등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을 자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반면,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며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음.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UAE, 바레인, 이집트가 가세한 對카타르 단교 및 경제 봉쇄 조치로 GCC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이란과의 관계는 역내 불안 요소로 작용

○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은 국제사회에서 표면적으로 이란 핵위협을 제거하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 및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와 맞물려 수니파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에 따라 역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시리아, 예맨 사태 등 역내 분쟁에서의 이란의 개입 및 영향력 확대를 강력 견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Abu Musa, Greater Tunb, Lesser Tunb의 3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이란과의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06억 750만 달러(단기 36억 2,270만 달러, 중장기 169억 8,480만 달러)로 연체 잔액은 1,390만 달러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UAE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UAE의 신용등급을 계속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평가일 현재 Moody's는 UAE와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모두 Aa2로 평가하고 있으며, Fitch는 UAE의 신용등급은 평가하지 않는 대신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음.

- 2017년 5월 27일 Moody's는 저유가 환경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등을 이유로 UAE의 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하였음.

- 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6개 토후국 중 가장 많은 원유매장량과 가장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바이 등 다른 토후국들의 재정적자 보전을 담당하는 등 연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UAE)	2 (2017. 6)	2 (2017. 1)
Moody's	(UAE)	Aa2 (2017. 5)	Aa2 (2016. 5)
	(아부다비)	Aa2 (2017. 5)	Aa2 (2016. 5)
Fitch	(아부다비)	AA (2017. 2)	AA (2016.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0. 6. 18.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 협정 : 투자증진보호협정(2002), 이중과세방지협정(2003),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2006), 군사협력협정(2006), 문화협력협정(2007), 원자력협력협정(2009), 항공업무협정(2010)**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의 원유 수입대상국**

○ UAE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의 원유 수입대상국임.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28.1억 달러로 전년(146.9억 달러) 대비 12.8% 감소하였음.

-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5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69.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9.4% 감소하였음.

※ 수입의 대폭 감소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함. UAE는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대상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이어 제3위였으나, 2016년에는

카타르의 원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제4위로 밀렸음.

< 표 4 > **한·UAE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7,211,628	6,076,775	5,869,962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
수 입	16,194,256	8,614,672	6,941,053	원유, 석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7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434건, 14억 3,971만 달러**

Ⅴ. 종합 의견

□ 아랍에미리트(UAE)는 경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석유부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와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2015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음. 경상수지는 원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3년 18.3%에서 2016년 3.1%로 급격히 위축되었음.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감소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2년말 대비 26.0% 증가한 843.8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정치적으로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거주민의 85%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2011년 아랍의 봄 이래 중동정세 격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중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의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연방을 주도하는 양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와 두바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노력에 의한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저유가에 따른 석유 부문의 침체를 상쇄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저유가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단계 상승한 종합 16위를 기록하였고, OECD와 국제신용평가3사도 UAE(또는 아부다비)에 대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책임조사역 김희원(☎02-6255-5720)
E-mail : kheewon@koreaexim.go.kr